

<현실판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 곳!

오스트리아 관광청, 올 상반기 휴가 가기 좋은 케른텐 주

베스트5 소개

- 짧은 휴가기간 중 꼭 둘러봐야 할 오스트리아 최남단 '케른텐 주(Carinthia)' ... 온화한 기후와 알프스 산맥 자연경관으로 수 많은 세계 여행객 발길 끌어

(2018-04-25) 오스트리아 관광청이 올 상반기 휴가 가기 좋은 오스트리아 최남단 지역 '케른텐 주(Carinthia)'에서 꼭 둘러봐야 할 **5대 관광 명소**를 소개했다.

케른텐 주는 봄부터 가을까지 온화한 기후를 띄며,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한 탁 트인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어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스트레스 해방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알려진 **그로스글로크너 하이 알파인 로드 (Grossglockner High Alpine Road)**는 케른텐 주에서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장소다. 그로스글로크너 하이 알파인 로드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국립공원인 '그로스글로크너 (Grossglockner)'에 위치해 있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진입할 수 있다. 1935년에 개통한 이 도로에서는 멋진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도로 곳곳에서 다양한 무료 전시, 테마가 있는 길, 고산 농장과 놀이터, 산악 레스토랑 등의 특별한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 만약 차량 대여를 하지 못했다면, 글로크너 버스를 이용해도 좋다. 단, 올해는 5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운행하며, 기간에 따라 운행기간이 상이하니 사전에 자신의 여행 일정과 비교해 확인해볼 것을 추천한다 (*5/6/9월은 수, 금요일, 7-8월에는 수, 금, 일요일만 운행)

매년 여름 개최되는 '**필라허 키르히탁 페스티벌(Villacher Kirchtag Festival)**'은 오스트리아 현지인들의 흥과 열정을 만끽할 수 있는 행사로, 이 곳을 방문한 여행객이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될 진귀한 볼거리 중 하나다. 이 페스티벌은 오스트리아 최대 규모의 전통 음악 축제로, 올해는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되며 현지인들이 즐겨 부르는 민속음악과 그들의 독특한 풍습이 담긴 다양한 음악을 만날 수 있다. 소위 오스트리아 버전의 옥토버페스트(Octoberfest)라고 불리는 이 행사에서는 여러 종류의 오스트리아 맥주도 즐길 수 있다. 전통 음악 밴드들의 대형 퍼레이드를 관람하는 것 또한 행사의 묘미다.

오스트리아 관광청은 그 외에도 **보르테제 강(Lake Worthersee)**과 케른텐 주의 주도 클라겐푸르트 (Klagenfurt) 내 마리아 보르트(Maria Worth) 지구의 멋진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전망탑 '피라미덴코겔(Pyramidenkogel)**', 오스트리아의 중세 시대를 엿볼 수 있는 '**호호오스터비츠성(Hochosterwitz Castle)**'를 비롯해 르네상스 양식의 아케이드 정원, 갤러리와 미술관 등 고풍스러운 구시가지를 배경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클라겐푸르트**

[언론문의처]

오스트리아 관광청 김윤경 과장 전화: 070-8656-3333 / 이메일: dara.kim@austria.info

오스트리아 관광청 홍보 회사 GEOCM 광지은 대리 전화: 070-7791-2586 / 이메일: jamie@geocm.com

(Klagenfurt)'도 추천했다.

오스트리아 관광청 한국 사무소 지사장 마이클 타우슈만(Michael Tauschmann)은 “오스트리아에는 미술, 음악뿐만 아니라 알프스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문화·자연 여행지가 있다” 며, “더 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케른텐 주에서 지역 곳곳의 흥미로운 콘텐츠와 구경거리를 만끽하며 즐거운 일탈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케른텐 주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오스트리아 관광청 웹사이트 내 **In tune with Austria** 페이지(<https://bit.ly/2JW0jY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론문의처]

오스트리아 관광청 김윤경 과장 전화: 070-8656-3333 / 이메일: dara.kim@austria.info

오스트리아 관광청 홍보 회사 GEOCM 박지은 대리 전화: 070-7791-2586 / 이메일: jamie@geocm.com

If there is a heaven, Carinthia is a heave in real life!

Austrian National Tourist Office to introduce Best 5 in Carinthia where is good for vacationing this first half

- Carinthia, the southernmost part of Austria, people have to visit for their short vacation ... now the regions is attracting a plenty of world travelers for its mild climate and the beautiful Alps

(April 25, 2018) Austrian National Tourist Office has recommended the five must-go tourist attractions in Carinthia where is the southernmost part of Austria for upcoming holidays.

Carinthia is getting popular among European for its mild weather from Spring to Autumn and the splendid natural landscape against a backdrop of the Alps which help to relieve travelers' stress.

When you come to the region, you have to visit 'Grossglockner High Alpine Road' first well known as the world most beautiful road only available for traffic including a car or a motorcycle from May to November. This road is located in Grossglockner where is the highest mountain in Austria and is a national park as well. You can experience a variety of enjoyments such as not only wonderful driving but also lots of free exhibitions, themed ways, alpine farms and playgrounds, restaurants and more. If you don't rent a car, then take the Glockner bus. It runs from 23 May to 28 September this year. If you want, it would be better to check their schedule before you go to the road as their operation schedule is different depend on season. (The bus is available on Wednesday and Friday during May-June, September / Wednesday, Friday and Sunday available during July-August).

You do not miss the Villacher Kirchtag where can enjoy Austrian locals' passion toward their traditional and joyful atmosphere which is held in every summer. This festival is the largest traditional music event in Austria, and it will take place this year from 28 July to 5 August. It is called Austrian version of Oktoberfest and people can enjoy several of local Austrian beer. Travelers can have fun with diverse music including folks and melodies reflecting locals' unique customs. Another real charm of the festival is watching the large parade with traditional bands.

Austrian National Tourist Office has also introduced the world highest wooden observation tower, Pyramidenkogel, where people can see a nice view of Lake Worthersee and Maria Wörth where is located in Klagenfurt – the state capital of Carinthia, Hochosterwitz Castle where can feel the Middle Ages in Austria and Klagenfurt where people make unforgettable memory by taking pictures with picturesque old town full of an arcade garden with Renaissance architecture, art galleries and more.

Michael Tauschmann, director in charge of Korean market from Austrian National Tourist Office said "There are many cultural and nature tourism destinations in Austria touching visitors' heart with the Alps not only with art and music. I hope more Korean travelers come to this fine dust-free region, Carinthia, and experience pleasant breaking away from the routine of daily life by enjoying interesting tourist contents and attractions."

For more information about Carinthia, you can find it on the page of **In tune with Austria** (<https://bit.ly/2JW0jYO>) from the website of Austrian National Tourist Office.

[언론문의처]

오스트리아 관광청 김윤경 과장 전화: 070-8656-3333 / 이메일: dara.kim@austria.info

오스트리아 관광청 홍보 회사 GEOCM 박지은 대리 전화: 070-7791-2586 / 이메일: jamie@geocm.com